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보도

2017. 11. 24(금) 조간부터

배포

2017. 11. 23(목)

책임자

동향분석실
전용식 실장(3775-9035)

작성자

전용식 연구위원(3775-9035)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 4매

보험연구원,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 발간

2017년 보험가입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 6년 평균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1%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보험소비자 수요와 보험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보험소비자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에 대하여 조사함
- 또한,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현안인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노후생활 준비 실태,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퇴직연금 연금 수령 선호도, 연성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함

*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9%임

가구당·개인별 보험가입률 모두 생명보험 중심으로 상승

- 2017년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0%로 전년대비 소폭(0.7%p) 상승함
 - 생명보험의 경우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전년대비 3.1%p 상승한 84.9%였으며, 손해보험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한 89.5%를 기록하였는데,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이 낮으나 상승세는 더 큼
- 2017년 전체 개인별 보험가입률의 경우도 전년대비 0.7%p 상승한 94.5%로 조사되었으며,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 개인별 보험가입률의 상승세가 컸음
 -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별 보험가입률이 78.2%로 전년대비 4.8%p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별 보험가입률이 78.4%로 전년대비 2.2%p 상승하

여, 생명보험 개인별 보험가입률의 상승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가구 및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구	생명보험	86.3	83.0	85.8	87.2	81.8	84.9
	손해보험	87.2	86.8	87.7	91.8	88.9	89.5
	전체	96.1	96.1	97.5	99.7	96.3	97.0
개인	생명보험	79.3	77.3	79.3	78.9	73.4	78.2
	손해보험	67.9	74.6	74.3	79.7	76.2	78.4
	전체	92.9	94.0	93.8	96.7	93.8	94.5

* 손해보험가입률에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됨

실손의료보험 가입률과 가입 의향 응답 비율 모두 상승, 보험료 부담감은 낮아짐

- 지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77.8%로 지난해 68.3%보다 9.5%p 상승함
 - 응답자의 8.5%가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수준(8.4%)과 유사함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0.5%로 전년 46.1%보다 5.6%p 낮아졌으며,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라는 응답도 35.8%로 전년 29.5%보다 6.3%p 상승함
 - 한편, 현재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40.3%보다 2.5%p 상승한 것임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이 있을 경우 실천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개선을 위해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도움이나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실천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됨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금연, 운동, 식단관리, 스트레스관리, 금주 혹은 절주, 비만관리 등의 계획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모두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반면 도움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는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상당히 개선(평균 18.4%p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 및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단위: %, %p)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없을 경우	있을 경우	차이 ¹⁾	없을 경우	있을 경우	차이 ¹⁾	없을 경우	있을 경우	차이 ¹⁾	
금연	(567)	78.8	53.6	-25.2	13.1	31.0	17.9	2.1	11.8	9.7	3.5
운동횟수 늘리기	(2,200)	54.5	40.2	-14.3	21.9	29.9	8.0	8.0	17.6	9.6	12.3
식단관리 강화	(2,200)	67.9	48.3	-19.6	17.8	26.3	8.5	6.1	17.0	10.9	8.4
스트레스 관리횟수 늘리기	(2,200)	73.7	53.9	-19.8	14.8	25.2	10.4	7.2	16.0	8.8	4.9
금주 혹은 절주	(2,200)	79.0	61.5	-17.5	12.0	23.6	11.6	2.6	9.9	7.3	4.9
비만관리	(2,200)	69.3	55.2	-14.1	16.8	23.7	6.9	5.9	14.6	8.7	6.5
평균(각 특성별 항목의 단순평균)		70.5	52.1	-18.4	16.0	26.6	10.6	5.3	14.5	9.2	6.8

주: 1) “차이”는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 및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이 없을 경우의 실천 계획 여부 응답률과의 차이를 말함

긴급 생활비 마련의 필요성으로 사적 노후대비 부족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61.0%였음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으로는 ‘공적연금’(52.6%), ‘은행예금’(18.6%), ‘연금저축’(13.6%), ‘부동산’(7.3%) 등의 순임
 -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데가 많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30.3%), ‘관심이 부족해서’(13.2%)등의 순으로 나타남

조상대상 가구의 28.7%가 개인연금에 가입...불만족 원인의 대부분은 낮은 수익률

-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은 28.7%로 비교적 낮았고 개인연금 가입을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69.6%로 높았으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유의 52.6%는 낮은 수익률임
 -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는 ‘납입 중’(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입 완료(연금 대기 중)’(19.0%), ‘연금 수령’(3.0%) 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의 수령 방법은 ‘연금 수령’(79.0%), ‘연금+일시금’(18.6%), ‘일시금’(2.3%) 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69.6%), 보통(27.5%), 불만족(3.0%)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로는 ‘수익률이 낮아서’(52.6%),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26.3%)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3.6%로 나타남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성향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나타남... 반면 주택연금은 수익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가입 주저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투자형'이 43.3%로 가장 높았고 '중립투자형'(30.0%), '투자하고 있지 않음'(19.0%), '공격투자형'(7.7%)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이 46.3%로 나타나고,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이 45.3%이었음
 -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29.2%로 가장 높았고,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27.3%),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6.6%), '노후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퇴직연금 미가입 비율은 60.1%...가입자의 62.2%는 종신 연금 수령 형태 선호

-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60.1%로 가장 많았고, DC형(27.0%), DB형(8.9%), IRP(7.4%)순으로 나타남
 - 은퇴시점이 다가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 본 결과, 연금(80.5%), 일시금(19.5%)순으로 나타남
 -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선호하는 연금 수령 기간을 살펴본 결과, 종신이 62.2%로 가장 높았고 30년(22.1%), 20년(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성보험사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5%, 반면 처벌에는 관대

-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연성보험사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
-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2%에 불과
 -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답변비율은 '아니오' 68.0%, '예' 32.0%

첨부 :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설명자료』 . 끝.